

방위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선·운송팀
이동이 선임연구원(leejjang04@kdb.co.kr)

I. 국내 방위산업 개요 및 현황

II. 국내 주요 무기체계별 분석

III. 글로벌 방산시장 및 주요국 국방 정책

IV. K-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 방위산업은 군수품과 관련 구성품을 개발·생산하는 산업으로 군수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는 지휘통제·통신 등 8가지,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지원장비 등 5가지 군수품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지형적 특성과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기동 및 화력 무기체계 중심으로 개발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내 방산업체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와 핵심부품을 생산·납품하는 방산협력업체로 구분된다. 한국은 체계종합업체 위주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수출규제 완화와 AI, 무인체계, 전자전 등 방산의 첨단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무기체계는 기존 무기체계와 미래 첨단 무기체계로 구별되며, 기존 무기체계에서는 기동·화력이 주력 수출 품목이며, 함정 및 항공 등 일부 품목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 첨단 무기체계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군집드론을 통하여 유인에서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 노력 중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미국은 글로벌 1위 국방비 지출국으로 국가 방위전략에 따라 국방비 증가가 전망된다. 유럽은 러·우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압박 등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강대국으로서 영향권 확대 시도 중이며, 러시아는 방위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내수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AI에 투자하고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화 전략으로 수출장벽 우회, MRO 역량 강화로 추가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고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소형 무인체계 등장에 대응하여 드론 강국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국내 방위산업 개요 및 현황

1. 개요

- 방위산업은 군수품과 관련 구성품을 개발·생산하는 산업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산업
 - 방위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며, 기술집약도가 높은 특성
 - 국방 R&D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 창출
 -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수출입, 기술이전, 품질 보증 등 모든 과정에서 정부승인 필수

〈표 1〉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

구 분	세부내용
정부주도 시장	■ 수요자가 국가로 한정된 산업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기관이 절대적인 구매자 - 정부의 국방정책, 전력 증강계획, 국방예산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 되는 구조
높은 기술집약도	■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 - 항공우주, 전자, 통신,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 - 막대한 초기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어,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필수
경제적 파급력	■ 민간 산업으로의 확산 및 민간 산업 참여 -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ICT 등 첨단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산업으로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산업 - 수천 개의 협력업체 및 일반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 생태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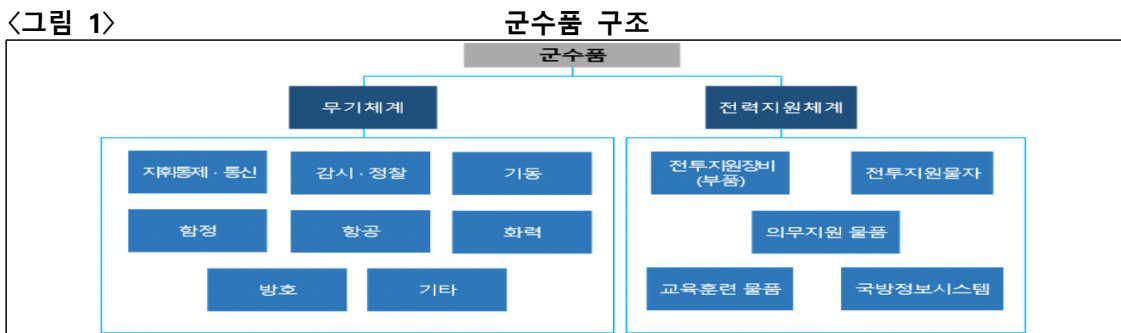
자료 : 당행작성(2026년)

2. 군수품 구성

□ 군수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

-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등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며,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등 8가지로 분류
-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 전투지원장비, 전투지원물자 등 5가지 군수품으로 구성

〈그림 1〉



자료 : 당행작성(2025년)

〈표 2〉

군수품 주요 구성 체계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지휘통제·통신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휘소의 정보처리·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장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송	전투지원 장비	승용차, 트럭류, 발전기, 탐지장비, 정비장비, 건설장비, 측정장비 등 61개
감시·정찰	레이더,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체계 등을 통해 적의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		
기동	기동전투, 지상무인체계, 개인전투체계 등을 통하여 육지전투 효율성 극대화	전투지원 물자	방탄복, 일반피복, 특수식량, 유류, 천막류, 공구류, 사무기기류 등 42개
함정	잠수함, 수상함, 해양무인체계 등을 통하여 해양전투효율성 극대화		
항공	고정익(전투기), 회전익(헬기), 무인기 등을 통하여 공중전투효율성 극대화	의무지원 물품	치과장비, 외과장비, 의약품 등 14개
화력	화포, 탄약 등 전통무기 체계 및 센서 정보로 표적을 타격하는 유도무기	교육훈련 물품	교육훈련용장비, 교육지원장비, 정훈장비 등
방호	적의 공중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방공무기, 화생방무기	국방정보 시스템	기획재정 정보체계, 인사동원 정보체계, 군수시설정보체계 등 9개
기타	모의훈련, 작전계획, 전력분석, 획득, 합동전투 실험 등 통합작전수행능력 지원		

자료 : 당행작성(2025년)

- 한국은 산악 지형에서 기동력 확보, 북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기동·화력의 재래식 무기 위주로 개발하여, 기동·화력 매출액이 55.6% 차지
 - 기동·화력 부문 기업체 수도 56.8%로 과반을 차지

〈표 3〉 국내 방위산업 무기체계별 매출액('24년 기준) (단위 : 억원)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26,261	16,381	70,364	40,419	35,267	104,214	10,033	10,960

자료 : 방위사업청(2026년)

〈표 4〉 국내 방위산업 무기체계별 기업체 수('24년 기준) (단위 : 업체 수)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53	16	91	37	29	175	10	57

자료 : 방위사업청(2026년)

□ 무기체계는 여러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시스템

- 각각의 부품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무기체계를 형성하며, 핵심 부품의 성능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
 - 핵심부품 자체도 중요하나, 여러 부품을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체계 통합 기술도 중요
 - 무기체계 완제품 하나에 지정 방산물자 및 일반 부품을 포함하여 전투기 약 20만 개, 전차 약 6만 개 등 수많은 부품이 사용

〈표 5〉 무기체계별 주요 부품

무기체계	부품
지휘통제·통신	송수신 모듈, 위성 안테나, 통신용 고출력 증폭기 등
감시·정찰	AESA 레이더, 광학 센서, 정밀 광학 렌즈 등
기동	엔진, 변속기, 현가장치, 궤도/타이어 등
함정	함정용 가스터빈, 함정용 디젤 엔진, 미사일 발사대 등
항공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항전 장비 등
화력	탐색기, 추진기관, 탄두 신관, 정밀 조준 장치 등
방호	방탄판, 차폐용 소재, 대공 미사일 탐지용 열상 센서 등

자료 : 당행작성(2026년)

〈표 6〉 국내 방위산업 무기체계별 방산물자 지정 현황

(단위 : 개수)

구 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전자	광학	화생방
완제품	51	117	44	23	46	49	86	52	20
부품	123	111	87	201	508	111	69	21	13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6년)

3. 방산업체 및 시장현황

□ 방산업체는 체계종합업체와 방산협력업체로 구분되며 정부기관 매출 비중이 높은 편

- 체계종합업체는 완제품 납품업체로 총 15개 업체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 D&A, 현대로템 등 4개사가 주요 업체
 - 체계종합업체는 고용인원이 많고 자체 설비투자도 활발히 진행하여 산업 내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
- 체계종합업체가 수주를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고, 방산협력업체와 일반업체¹⁾는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
 - 방산협력업체는 총 69개 업체이며, 군수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 역할

〈표 7〉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구조별 기업체 수('24년 기준)

(단위 : 업체 수)

방산업체		일반업체
체계종합업체	방산협력업체	
15	69	384

자료 : 방위사업청(2026년)

1) 일반업체는 품질관리체계, 보안관리체계를 갖추고 방산업체 협력사로 등록되거나 공개입찰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범용부품을 생산

〈표 8〉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구조별 고용인원, 설비투자 및 매출액 현황('24년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방산업체		일반업체
	체계종합업체	방산협력업체	
고용인원 현황	27,981	9,477	14,090
설비투자 현황	8,117	2,049	1,716
매출액	223,863	43,885	46,151

자료 : 방위사업청(2026년)

○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이 방위산업 매출액의 44.5%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9〉 국내 방위산업 납품처별 매출액 현황('24년 기준)
(단위 : 억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기타관납	방산업체	기타	합계
109,620	20,788	3,137	6,112	80,753	93,489	313,899

자료 : 방위사업청(2026년)

〈참고 1〉 무기체계별 방위산업 주요기업 현황

구 분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지휘통제 통신	감시 정찰	'25년매출액 ^{주)} (단위: 억원)
체계 종합	기아								651,487
	HD현대중공업								175,695
	대한항공								165,019
	한화오션								129,036
	한화에어로								92,251
	현대위아								72,788
	현대로템								56,950
	LIG D&A								42,900
	풍산								38,491
	KAI								36,252
	한화시스템								30,915
	HJ중공업								19,989
	SNT모티브								9,987
	SNT다이내믹스								6,051
협력 업체	현대트랜시스								89,974
	LS엠트론								9,351
	STX엔진								7,448
	평화산업								6,180

주 : 개별 전체매출액 기준임
자료 : 당행작성(2026년)

□ 국방비 증액과 동시에 해외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주요 체계종합업체(한화에어로, KAI, LIG D&A, 현대로템) 중심으로 수출 확대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국방비는 매년 GDP 2.3%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중 무기체계 구매에 관련된 방위력개선비²⁾는 국방비의 30% 수준으로 책정
- '25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61.2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상회하였으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
 - '26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9조원,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20.0조원을 편성함으로써 예년 대비 큰 폭 증가

〈표 10〉 대한민국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국방비	57.0	59.4	61.2	65.9
(GDP 대비)	(2.37)	(2.34)	(2.32)	(2.37)
방위력개선비	16.9	17.7	17.8	20.0
(국방비 대비)	(29.7)	(29.7)	(29.1)	(30.3)

자료 : 국방부, e-나라지표(2026년)

〈참고 2〉 국방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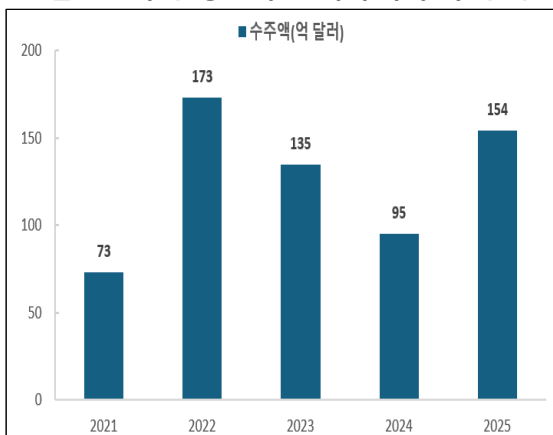


자료 : 당행작성(2026년)

2)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으로 방위산업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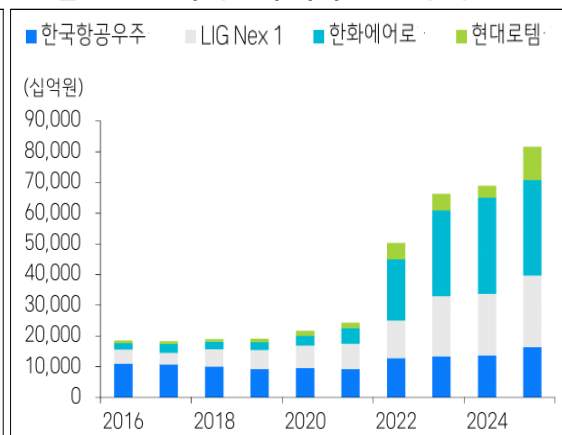
- 기존 방위산업은 국방비에 의존하는 내수 중심이었으나, 최근 국내 4사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주액은 '20년까지 연간 20~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1년 FA-50, K9 자주포 등 수주 호조로 73억 달러 달성
 - '22~'25년에는 러·우전쟁 여파 등으로 여러 국가³⁾로부터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수주 성공
 - 높은 해외 수주실적 달성에 힘입어 국내 4사의 수주잔고도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국내 방산기업 해외 수주액 추이



자료 :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2026년)

〈그림 3〉 국내 4사 수주잔고 추이



주 : 각 사 방산부문 기준

자료 : 삼성증권(2025년)

- 해외 수주액 및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4사 방산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22년 1.96조에서 '25년 9.73조로 395.4%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 증가
 - 현대로템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70.6%로 월등히 높으며,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및 KAI는 약 50% 수준 차지
 - LIG D&A는 아랍에미리트(UAE) 향 천궁-II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25년 수출 비중 19.9%에서 '26년 상반기 기준 27.9%로 증가
 -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 육군 향 K9 자주포 수주 성공, 북유럽 영업망 확대 등 감안시, 향후에도 수출 실적은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3) 특히 폴란드향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1~'25년 기준 폴란드향 수출 비중 58%

〈표 11〉

국내 4대 방산기업들의 수출액 및 수출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1H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화에어로	5,077	14.2	15,056	26.6	36,369	42.2	46,725	47.3	19,483	46.1
현대로템	1,937	18.3	6,826	43.3	15,917	67.3	23,292	72.4	12,277	70.6
KAI	8,563	30.9	18,330	48.3	14,621	40.6	18,699	51.6	11,501	51.8
LIG D&A	4,060	18.3	3,584	15.5	7,738	23.6	8,557	19.9	6,357	27.9

주 : 각 사 방산부문 매출액 기준이며, KAI는 전체매출 대비 수출액임

자료 : 각 사 전자공시시스템(DART, 2026년)

- 방위력개선비 및 수출 증가로 국내 4사(합산)는 '25년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4)
- 기 보유한 대규모 수주실적의 순차적인 매출전환 및 이익시현, 안정적인 추가 수주를 통해 '26년에도 우수한 영업실적 달성 전망

□ 국내 방위산업은 가격 및 납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방산 시장에서는 가격(Price), 납기(Delivery), 성능(Quality) 3가지 요소가 핵심 경쟁력
 - 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납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나, 전쟁 가능성이 낮은 국가는 경제력에 따라 가격 또는 성능 경쟁력이 중요
 -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나, 종합적으로 가격, 납기, 성능 순으로 중요
- 국내 방위산업은 가격, 납기 경쟁력의 경우 해외기업 대비 우수하나, 성능은 일부 격차가 존재
 - 우수한 가격 및 납기 경쟁력과 수요자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는 성능을 기반으로 수출이 증가5)하고 있으며, 성능도 지속적으로 해외기업과 격차를 축소 중

4) '25년 국내 4사(합산) 영업실적 : 매출액 40조 5,452억원, 영업이익 4조 6,83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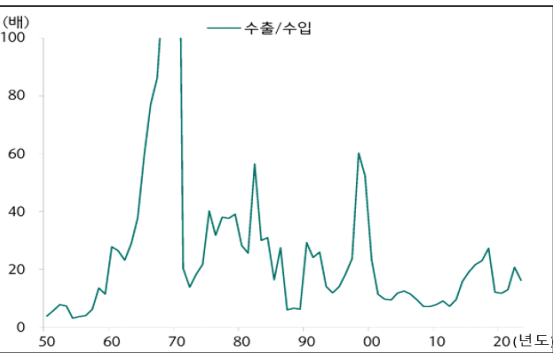
5) 세계 무기교역량 순위 : ('19~'23년) 2.1%(10위) → '24년 3.6%(8위) → '25년 6.0%(4위)

〈표 12〉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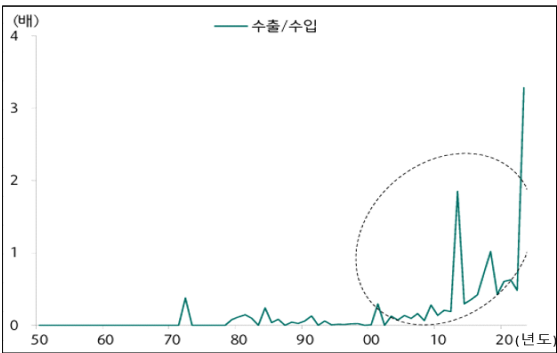
구 분	가격 경쟁력	납기 경쟁력	성능 경쟁력
내 용	전투기는 해외대비 30% 낮은 판가 형성 지상방산(전차, 자주포, 등) 판가는 해외와 유사	글로벌 납기 지연 현상이 만연하나, 국내 업체는 납기 지연 이력 없음	국내 성능이 해외대비 소폭 하회 다만, 각 국가가 제시하는 성능 수준은 만족

자료 : 하나증권(2024년)

〈그림 4〉 미국 무기체계 수출/수입 비중 추이 〈그림 5〉 한국 무기체계 수출/수입 비중 추이



주 : 미국 무기체계는 최근 수출 감소추세
자료 : 하나증권(2024년)



주 : '13년 미국산 무기 수입 감소로 피크형성,
'23년은 러·우전쟁으로 수출 급등
자료 : 하나증권(2024년)

□ 러·우전쟁 장기화와 중동분쟁으로 K-방산 수출증가세 지속 예상

- '22년 러·우전쟁으로 폴란드향 무기 수출이 전년 대비 급증(+1,225%)하였고, 전쟁 여파로 유럽의 군비 증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향 수출 증가 예상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전력공백을 가능한 빨리 보완하기 위해 대량생산 및 납기가 빠른 K-방산제품 수입
-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위주로 수입

〈표 13〉 국내 방위산업의 폴란드향 수출량 및 수출비중

(단위 : 백만TIV,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수출량	12	159	595	785	1,075
수출비중	2.2	68.8	88.1	71.2	53.2

주 : TIV(Trend Indicator Value)는 무기 가격이 아닌 무기 시스템의 상대적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책정한 무기 거래 규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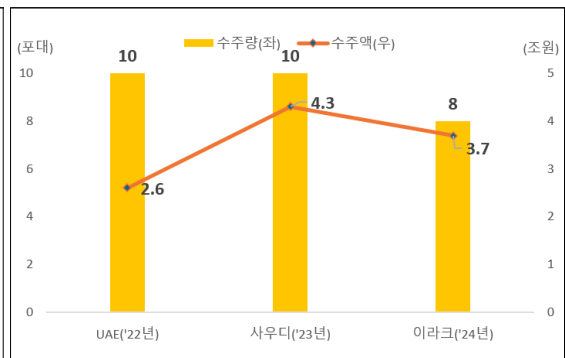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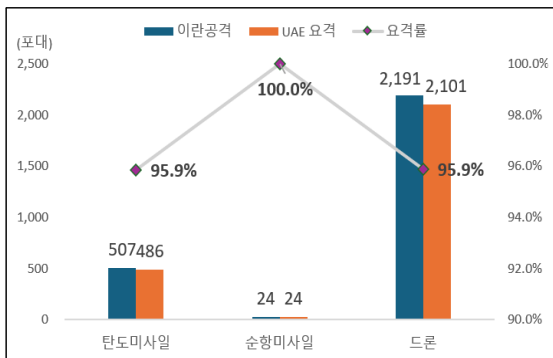
자료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26년)

-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무기재고 소진, NATO의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합의 등이 K-방산의 수출기회로 작용
- 유럽은 수요 대비 CAPA가 부족하고, 재고 복원 부담이 큰 일부 국가들은 긴급 조달 수요가 커 납기 신뢰도가 중요

○ '26년 중동분쟁으로 중동 주요국의 방공체계 보강 및 요격탄 재고 확충 필요성 증가

- 글로벌 공급업체 생산능력 제약과 높은 단가 구조로 국내 무기체계가 대안으로 부각되어 수출증가 예상
- 특히, UAE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천궁-II를 운용하였고, 95% 이상의 높은 요격률이 수출 레퍼런스로서 훌륭한 역할

〈그림 6〉 UAE의 이란 미사일·무인기 요격 추이 〈그림 7〉 천궁-II 중동 수출현황



자료 : SK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당행 작성(2026년)

자료 : SK증권 등 자료 바탕으로 당행 작성(2026년)

□ 정부도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여러 국가로부터 국내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6.7.1일자로 수출 규제를 완화하여 K-방산 수출 확대 장려
- 금번 규제 완화로 수출시 수반되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기간 축소(2개월→1개월), 반복적인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2년→5년) 확대
- '방위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첨단·혁신, 지속·상생, 글로벌화 기준 핵심목표와 R&D 혁신, 공급망 구축, 벤처기업 육성 등 추진과제 설정

핵심목표	
구 분	내 용
첨단·혁신	국방과학기술수준 : ('24년) 8위 → ('30년) 7위 국방첨단분야 기술수준 : 최선진국 대비 85%
지속·상생	누적 매출액 : '26~'30년 간 300조원 중소기업 매출 점유율 : ('24년) 18% → ('30년) 25% 고용인원 : ('24년) 5.2만명 → ('30년) 8만명
글로벌화	방산수주액 : ('24년) 95억불 → ('30년) 200억불 글로벌 시장 점유율 : ('24년) 2.2% → ('30년) 6%

자료 : 방위사업청(2025년)

- 추진과제 진행으로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전망되고, 방위산업 안정성 및 자립성 강화, 방산기업 확대 및 수출역량 증진 기대

II. 국내 주요 무기체계별 분석

1. 기존 무기체계

□ 기동(K9자주포, K2전차) 및 화력(천무, 천궁-Ⅱ) 무기체계는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

- K9자주포는 대한민국 대표 궤도형 자주포로서 강력한 험지 기동력으로 다양한 환경 및 지형에서 작전수행 가능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엔진 국산화율 99%로 기술자립 시험 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⁶⁾
- K2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차로 험지 돌파에 탁월하며 자동 장전으로 안정적인 발사속도와 높은 사격정확도 보유
 - 현대로템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폴란드 수출⁷⁾ 이후 시장확대중
- 천무는 탄체를 투발하여 적을 무력화하는 차륜형 다연장로켓 체계로, 사격 후 즉시 이동(Shoot and Scoot)에 최적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국산화율 90% 수준으로 이익률이 높은 수출품목에 해당⁸⁾
- 천궁-Ⅱ는 탑재된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 공중방어를 담당하는 방어용 무기이며, 국산화율 95%로 기술자립 시험
 - 한화시스템에서 다기능 레이더 개발, LIG D&A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중동 국가 위주 수출⁹⁾

6) 폴란드 1차 212문(3.2조원) / 2차 152문(3.4조원) / 후속구성품(0.4조원), 루마니아 54문(1.4조원 (K10 36대 포함)), 베트남 20문(0.3조원), 인도 구성품(0.4조원)

7) 폴란드 1차 180대(4.5조원) / 2차 180대(9.0조원)

8) 폴란드 1차 218대(5조원) / 2차 72대(2.3조원) / 미사일(5.6조원), 에스토니아 6대(0.4조원), 노르웨이 16대(1.3조원), 크로아티아 18대(0.6조원)

9) UAE 10개 포대(2.6조원),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4.3조원), 이라크 8개 포대(3.7조원)

□ 함정 및 항공 무기체계에서도 일부 품목은 수출경쟁력 확보

- 울산함은 연안 방어 및 함포 지원을 위해 설계된 수상함으로 잠수함 탐지 및 타격 능력 등 대잠 성능이 특징
 - HD현대중공업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현재 부품 국산화율은 90% 수준으로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¹⁰⁾
- 도산안창호함은 디젤, 연료전지 및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수직발사대 10셀 보유하는 등 화력 성능이 특징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모두 생산 가능하며, 부품 국산화율은 70% 수준으로 엔진 및 심해용 부품은 수입 중
 - 수출 실적¹¹⁾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나, 추가적으로 해외 잠수함 교체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등 수출 실적을 쌓기 위해 노력 중
- KF-21은 대한민국 대표 4.5세대 첨단 전투기로서, 뛰어난 기동성과 제한적 스텔스¹²⁾ 능력으로 복합적인 미래전장에서 작전수행 가능
 -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체계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AESA 레이더¹³⁾ 개발 및 장착으로 피탐확률 최소화하여 해외국들이 관심¹⁴⁾
-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경공격기로서 첨단 항전장비 탑재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탑재 가능
 -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 및 납품하며, F-16과 높은 호환성으로 인한 기종 전환 수요가 있어 다양한 국가로 수출¹⁵⁾

10) 필리핀 1차 2척(0.4조원) / 필리핀 2차 2척(0.8조원), 태국 1척(0.5조원)

11) 인도네시아 1차 3척(1.2조원) / 2차 3척(1.2조원)

12) 적의 레이더 화면에서 기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작은 새 혹은 별레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13)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로서,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지 않고 송수신 모듈을 이용해 빔을 빠르게 조향

14) 현재 양산 1호기만 출고되어 수출실적은 없으나,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 다양한 국가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중

15) 폴란드 48대(4조원), 말레이시아 18대(1.2조원), 필리핀 12대(1.0조원)

2. 미래 첨단 무기체계

□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군집드론을 통하여 기존 유인 전투체계에서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 노력

- 한국, 미국은 5세대 전투기에서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연구 진행 중
 - 5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의 부분적 스텔스 기능이 아닌 전방위 스텔스가 가능한 전투기를 의미하며, F-22, F-35가 대표적
 - 6세대 전투기는 단일 전투기가 아닌,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¹⁶⁾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를 의미

〈그림 8〉 저피탐 무인 편대



자료 : 대한항공(2026년)

- 군집 AI기반으로 표적에 대한 자폭드론 공격, 침투드론 요격 등 무인기를 활용하여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군집드론 수요 증가 전망

〈표 15〉 국산 군용 군집드론 성능

구 분	군집 자폭드론(S20s)	군집 정찰드론(R20s)	군집 요격드론(C10s)
최대이륙중량	32kg	32kg	4.2kg
비행시간	80분	90분	30분
최고속도	150km/h	130km/h	150km/h
최대탑재무게	5kg	5kg	1.5kg

자료 : 파블로항공(2026년)

16) MUM-T(Manned-Umanned Teaming) : 유인기와 무인기가 공통의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간 연동 및 협업하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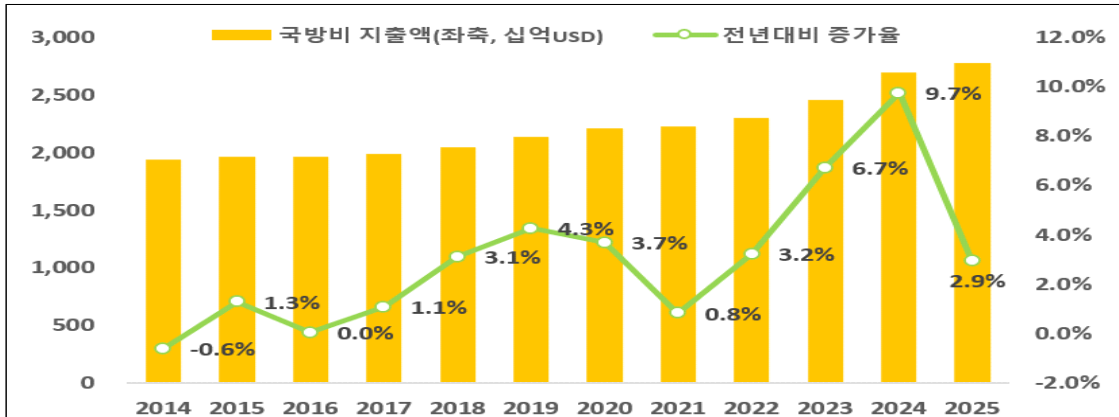
Ⅲ. 글로벌 방산시장 및 주요국 국방 정책

□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가 기조 감안시 글로벌 방산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전망

○ 글로벌 국방비는 '25년 2.77조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

- 러·우전쟁,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정성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가세 전망
- '25년 유럽 국방비의 경우 러·우전쟁 장기화, 미국의 NATO 지원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동아시아도 전년 대비 7.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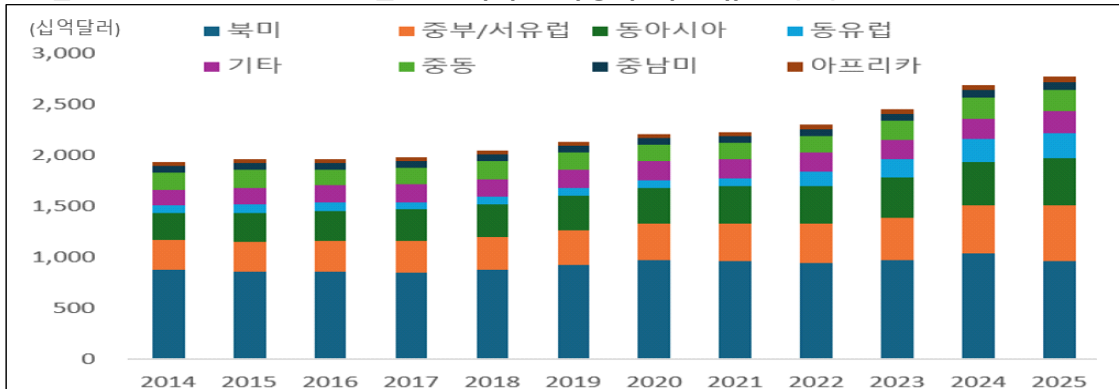
〈그림 9〉 글로벌 국방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주 :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인 미국이 '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미승인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여 '25년 글로벌 국방예산 증가율은 2.9%로 감소

자료 : SIPRI(2026년)

〈그림 10〉 글로벌 지역별 국방비 지출 규모 추이



자료 : SIPRI(2026년)

- '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¹⁷⁾의 무기판매액은 6,7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
- 특히 독일(+36.0%) 기업들의 무기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도 30.9% 증가

〈표 16〉

세계 주요 방산기업 무기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순 위		회사명	국가	판매액		증가율
'24년	'23년			'24년	'23년	
1	1	Lockheed Martin Corp.	미국	64,650	62,630	3.2%
2	2	RTX(RaytheonTechnologies)	미국	43,600	41,870	4.1%
3	3	Northrop Grumman Corp.	미국	37,850	36,630	3.3%
4	6	BAE Systems	영국	33,790	31,600	6.9%
5	5	General Dynamics Corp.	미국	33,630	31,100	8.1%
6	4	Boeing	미국	30,550	32,030	△4.6%
7	7	Rostec	러시아	27,120	21,450	26.4%
8	9	AVIC	중국	20,320	20,590	△1.3%
9	8	CETC	중국	18,920	21,110	△10.4%
10	11	L3Harris Technologies	미국	16,210	15,200	6.6%
11	10	NORINCO	중국	13,970	20,310	△31.2%
12	13	Leonardo	이탈리아	13,830	12,560	10.1%
13	12	Airbus	유럽연합	13,370	13,210	1.2%
14	15	CSSC	중국	12,330	11,340	8.7%
15	16	Thales	프랑스	11,800	10,600	11.3%
16	17	Hill	미국	10,280	10,610	△3.1%
17	14	CASC	중국	10,230	12,200	△16.1%
18	19	Leidos	미국	9,370	8,990	4.2%
19	23	Amentum	미국	8,330	8,200	1.6%
20	26	Rheinmetall	독일	8,240	5,620	46.6%
21	24	한화그룹	한국	7,970	5,600	42.3%
60	73	LIG D&A	한국	2,400	1,740	37.9%
70	54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2,010	2,250	△10.7%
80	84	현대로템	한국	1,730	1,190	45.4%

주 : '24년 KAI 판매액은 소형무장헬기(LAH) 인도 지연, 고객사인 보잉 파업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25년 신규수주가 전년 대비 30% 증가

자료 : SIPRI(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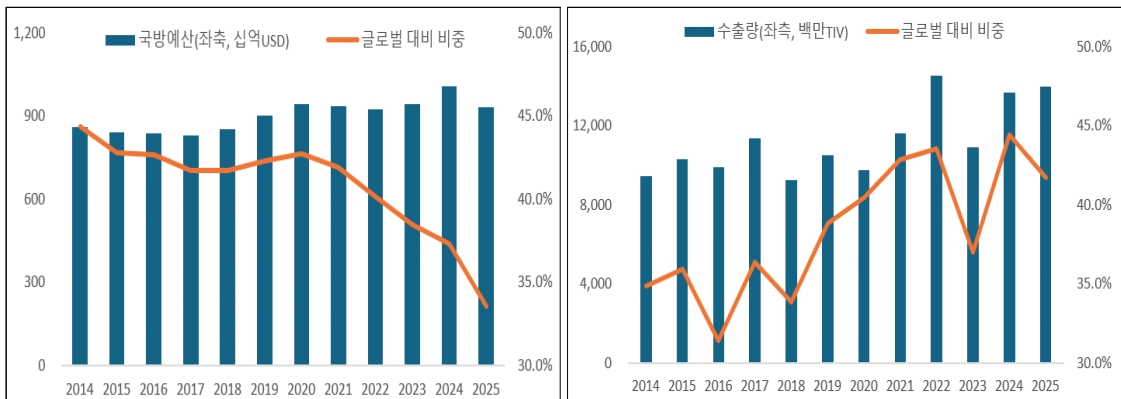
17) 세계 100대 기업 중 미국(39개)과 유럽 기업(28개) 비중이 높은 수준

1. 미국

□ 글로벌 1위 국방비 지출국으로 국방비 지속 증가 전망

- 매년 글로벌 1위 국방비 지출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수출 규모 역시 글로벌 1위 지속
 - '25년 국방비는 약 9,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지원 미승인에 따른 일회성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

〈그림 11〉 미국 국방예산 및 글로벌 대비 비중 추이 〈그림 12〉 미국 무기수출 및 글로벌 대비 비중 추이



주 : 여러 국가들이 국방비를 확대하여 글로벌 대비 미국 국방비 비중 감소추세
 자료 : SIPRI(2026년)

자료 : SIPRI(2026년)

- '26.1월 NDS¹⁸⁾를 발표하였으며, NDS의 '힘을 통한 평화' 하의 국방전략에 따라 미국 국방비 증가 전망
 - ①미국 본토 방어, ②중국의 군사능력 확대 대응전략 설정, ③동맹국 국방비 지출확대 및 공동방어 요구, ④미국 방위산업기반 강화라는 4대 과업 정리
 - 중국에 대해서는 제1 도련선¹⁹⁾에서의 강력한 방어선 구축을 명시
 - 동맹국 방위 지출은 GDP 5%(핵심 군사 3.5%+안보 관련 1.5%) 라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18)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약자로,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을 의미

19)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

- 방위산업기반 강화는 생산능력 확충, 혁신기업 참여 확대, AI도입, 규제·관행 정비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맹·파트너의 생산능력도 활용하여 동맹의 전력 증강 가속화도 포함
- NDS 실행을 위해 미국 국방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방위 산업은 역량 극대화 및 공급망 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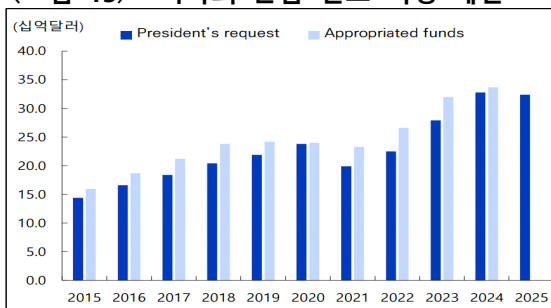
〈표 17〉 연도별 NDS 비교

구 분	'18년	'22년	'26년
기조	강대국간 전략경쟁 전환	통합억제를 축으로 한 장기 전략경쟁	힘을 통한 평화, 유연한 현실주의
우선과제	중·러 중심 전략경쟁	중국과의 전략경쟁, 러시아 위협 대비	본토 방어, 대중국 억제, 동맹 분담 확대, 산업 재건
동맹관	동맹의 전략적 가치, 비용 분담 요구 증대	동맹 네트워크가 핵심, 통합억제의 중심 수단	동맹국 분담 확대, 위협에 공동대응
산업·기술	국방부 개혁·효율화, 준비태세 강화	혁신과 방산·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우위 유지	방위산업기반 국가적 동원
대중국접근	중국 위협 부각, 장기 경쟁 구조화	페이싱 챌린지 규정, 동맹·파트너 통합대응	억제와 소통 병행

자료 :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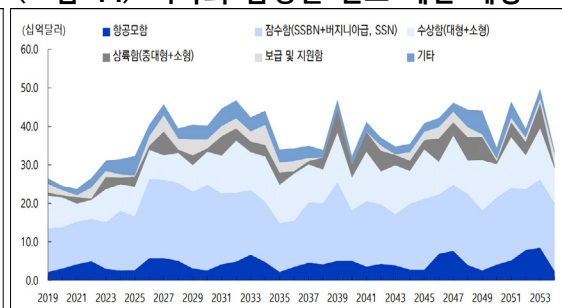
- '25년 기준 미국 국방비의 3.8% 비중을 차지하는 함정 건조 예산도 확대 중이며, 산업 재건 정책으로 조선업을 육성함으로써 해군력 강화 예상
- 미 국방부는 보유 함정 확대('25년 291척 → '31년 450척) 계획을 발표하였고, 군함 건조 예산도 '27년까지 지속 증가 전망
- 또한 Ships for America²⁰⁾ 법안 제정으로 자국 조선업 육성 및 해군력 강화 추진

〈그림 13〉 미국의 군함 건조 책정 예산



자료 : 교보증권(2026년)

〈그림 14〉 미국의 함정별 건조 예산 예산



자료 : 교보증권(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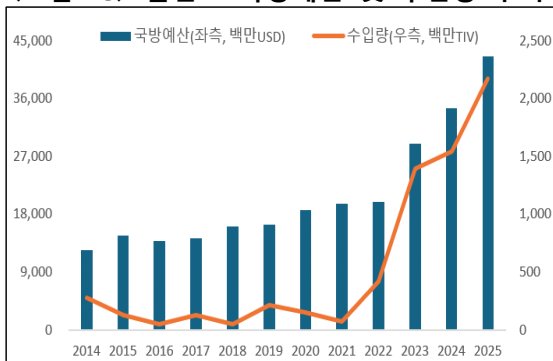
20) 미국의 조선소 인프라 투자 및 자국 선대 확대 등 해양 산업 재건을 위한 법안

2. 유럽

□ 러·우전쟁 장기화, 미국의 국방비 지출 압박 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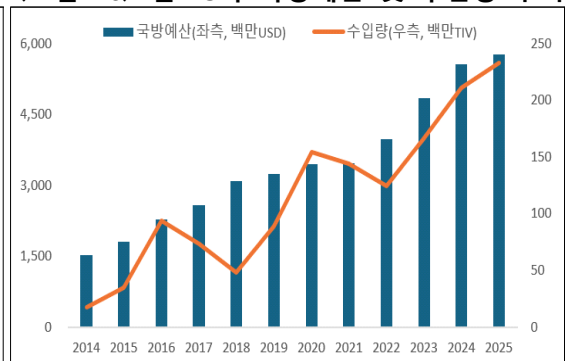
- '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인접국인 폴란드, 발트 3국 등은 지리적으로 매우 위험하여 국방비 확대
 - 특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킬리닌그라드',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이 존재하여 러·우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극대화
 - 이에 따라 폴란드 및 발트3국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확대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증가 추세

〈그림 15〉 폴란드 국방예산 및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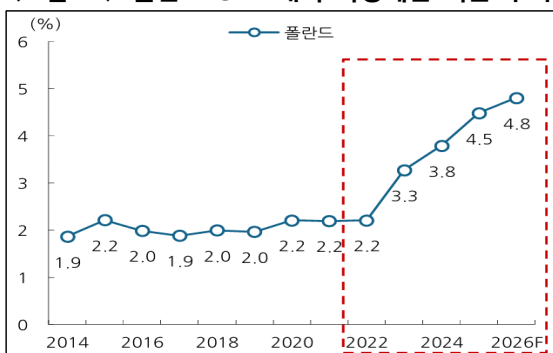
자료 : SIPRI(2026년)

〈그림 16〉 발트3국 국방예산 및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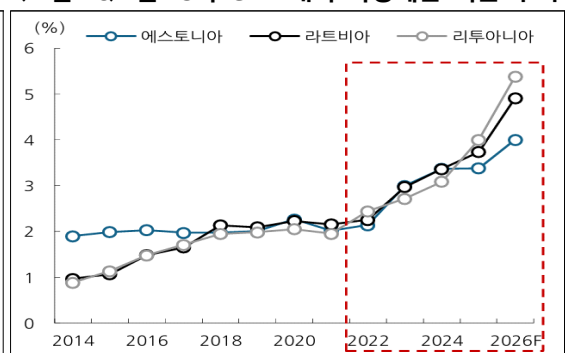
자료 : SIPRI(2026년)

〈그림 17〉 폴란드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추이



자료 : DS투자증권(2026년)

〈그림 18〉 발트3국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추이



자료 : DS투자증권(2026년)

- 폴란드는 '21~'25년간 전체 수입중 한국제품 비중이 1위로 47%를 차지하였으며 천무, K9자주포, K2전차 등 수입

- 서유럽 국가도 러시아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NATO는 '35년까지 GDP 5%²¹⁾의 국방비 지출 합의
-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공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능력·예비전력·억지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
-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이 시작되었으며, 국방비 확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방비 증액 가속화 예상

〈표 18〉 유럽 주요국 장기적 GDP 대비 국방예산 목표 및 자원마련 방안

구 분	목표비율	재원 마련 방안
독일	3.5%('29년)	'22년 도입한 1,000억 유로 특별기금 활용 헌법/재정규칙 개편으로 국방·안보 지출 차입한도 제거
영국	2.5%('27년) → 3%까지 추가 증액 목표	해외 원조예산(ODA) 삭감
프랑스	중장기 3.0~3.5%	민간저축/기존 투자 상품을 방산으로 유도
이탈리아	단기 2%	회계기준 재분류로 단기적으로 2% 달성 목표
네덜란드	2.8%('30년)→3.5%('35년)	소득세·법인세에 '자유세' 가산세 도입 계획 보건·복지 등 광범위한 지출 삭감 병행

자료 : DS투자증권(2026년)

- 미국을 제외한 NATO 국가들은 '35년까지 5% 목표 달성을 위해 1조 640억 달러의 추가지출이 필요
- 다만, 미군 철수 및 러시아 재침공시 GDP 대비 5%도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5%보다 높은 타겟설정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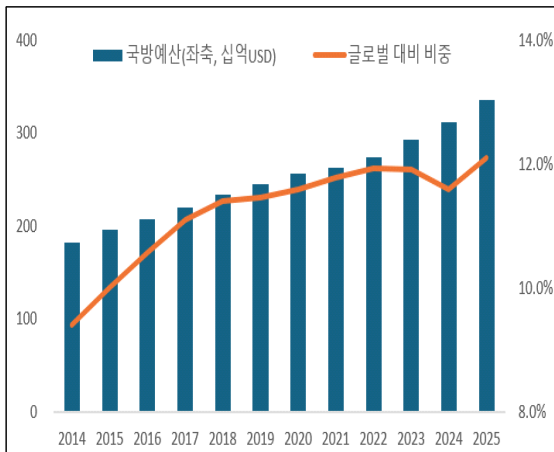
21) 3.5%는 직접군사비·무기·병력 등 핵심 국방비, 1.5%는 사이버·인프라 등 간접비

3.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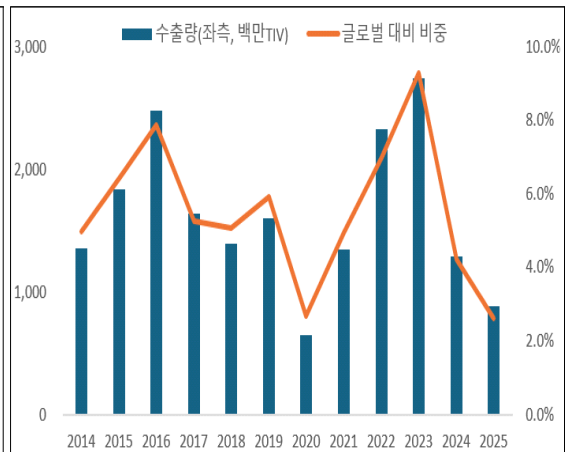
□ 국방비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에 이은 강대국으로서 영향권 확대 시도

-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수행 중이며, '26년 국방비는 약 2,7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액
 - '25년 기준 중국 국방비는 아시아 전체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
 - 또한, 중국 국방비는 축소 발표된 수치로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22년 기준 이미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21~'25년 기준 글로벌 수출비중은 5위로 5.6%를 차지하였으나,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등 수출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출은 감소세

〈그림 19〉 중국 국방예산 및 글로벌 대비 비중 추이 〈그림 20〉 중국 무기수출 및 글로벌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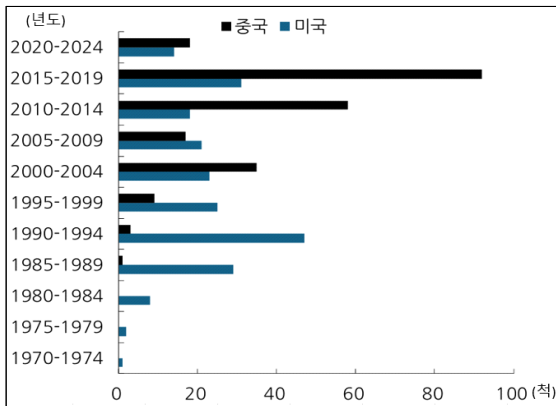
주 : 중국 국방비는 SIPRI 추정치임
자료 : SIPRI(2026년)



자료 : SIPRI(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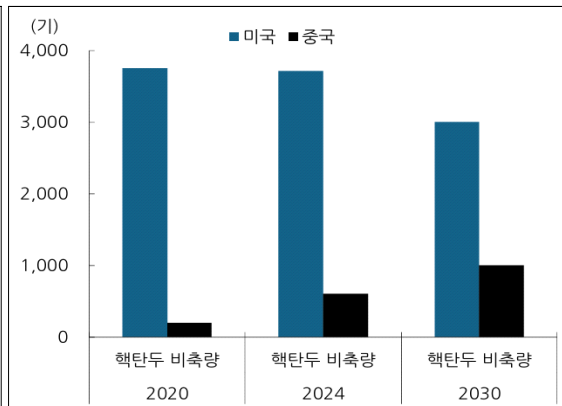
- '22년 기준 전함 수는 225척으로 미국(220척)을 추월, '24년 기준 핵탄두 수는 600기로 추정되는 등 군사력 강화 중
 - '26년까지 미 해군은 신조보다 퇴역계획 군함이 많아 격차 확대가 전망되고 핵탄두22)는 '30년 기준 1,000기까지 증가 전망

〈그림 21〉 미국 및 중국 군함 척수 비교



자료 : DS투자증권(2026년)

〈그림 22〉 미국 및 중국 핵탄두 보유 수량 비교



자료 : DS투자증권(2026년)

○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를 적극 추진

- 미래 방위산업 핵심 경쟁력으로 AI, 로봇, 드론 등 무인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 확대
- '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AI 기반 무인전력을 공개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현 가능성 시사

〈그림 23〉

'24년 주하이 에어쇼 주요 AI 무인 전력



자료 : 산업연구원(2025년)

○ 강화된 군사력 기반으로 제 1도련선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 중으로, 인근 국가인 대만에서는 긴장감 고조

22) 태평양과 인도양 대부분 지역을 타격 가능한 탄도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 국방비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방위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여 내수경제 견인

- 〈표 19〉 러시아 국방비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 억달러, %)

주 : 러시아 국방비는 SIPRI 추정치임
자료 : SIPRI(2026년)

- 〈표 20〉 '24년 러시아 방산물자 생산능력

자료 : iM증권(2025년)

56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산은조사월보

IV. K-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

1. 기존 무기체계 지능화 및 항공엔진 국산화

□ 국내 방위산업은 기동·화력 등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AI 투자가 중요

- 러·우전쟁과 중동분쟁 등 최근 전쟁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및 AI 지능화로 전환
 - 이로 인해 기존 무기체계가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과 잠재력 폭이 전례없이 확대되는 추세²⁴⁾
- 국내 방위산업은 글로벌 수준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하드웨어 중심의 성능 경쟁력만으로는 향후 시장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무기체계에 AI를 접목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현재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이러한 글로벌 방산기술 변혁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

〈표 21〉 국내 방위산업의 AI 개발 현황

구 분	HR-세르파 (다목적 무인차량)	K9A3 (유무인 복합 자주포)	천무3.0 (미사일)
제조사	현대로템	한화에어로	한화에어로
특징	손동작 기반 AI 인식 솔루션 적용	AI기반 완전 무인화	AI 군집 제어기술
용도	정찰, 경계근무, 원격사격, 안티드론 등	무인 포탑 및 원격 운용, 자동주행 등	자폭드론 운반 및 목표물 정밀타격
개발시기	'24.6월	'30년 초 목표	'28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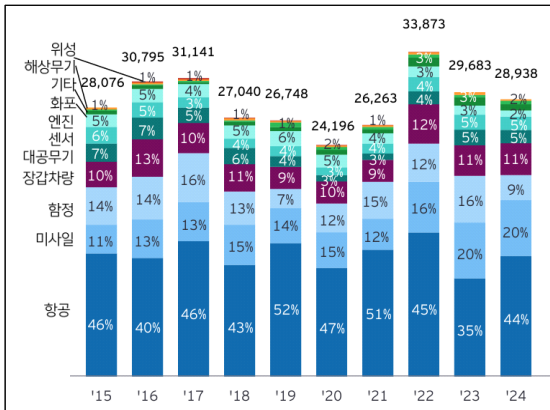
자료 : 언론자료(2026년)

24) AI 기반 표적 자동 생성 및 식별, 무인기(드론)와 자율 무기체계 운용, 지능형 방공망 형성, AI 기반 탄도탄 및 유도무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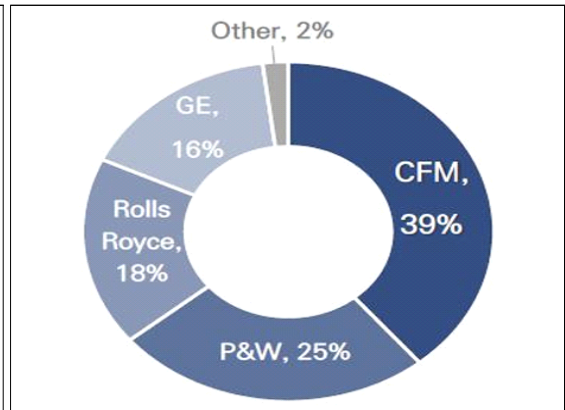
□ 첨단 항공엔진을 자체개발하여 항공부문 부가가치 제고 필요

-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항공 부문이 40%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
 - 특히, 항공엔진 시장은 전 세계 4개 기업이 독과점 형성

〈그림 24〉 글로벌 장비별 무기거래 비중 추이 〈그림 25〉 '23년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 점유율



자료 : EY한영(2025년)



주 : CFM은 GE, 샤프란(프랑스 엔진제조사) 합작사
자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5년)

- 국내 업계는 지상장비가 주력²⁵⁾이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항공엔진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 및 개발²⁶⁾
 - 현재 항공엔진은 해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면허생산하고 있어 수출시 원천국 승인이 필요한 바, 전투기 수출에 제약사항 발생
 - 과거 K9자주포 '엔진'도 면허생산 하였으나, 독자개발로 수출제약 해소
 - 항공엔진 역시 독자개발시 수출제약이 해소되고 제품 Life Cycle이 길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국가 위상 제고²⁷⁾

- 첨단 항공엔진 개발시 생산유발(68조원) 및 고용유발(10만명) 등 기대
 - '59년까지 약 1,700대 항공엔진 수요 및 27조원의 내수시장 형성 전망

25) '21~'25년 국내 방산 무기체계별 수출비중 : 지상방산 53%, 항공 5.3% 등

26) '24.12월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첨단전략 기술로 지정되어 개발 추진 중이며, '30년대 중후반 개발완료 목표

27) 독자 엔진보유(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글로벌 7번째 국가로 등극

2. 현지화 구축 및 MRO 시장 진출

□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확대할 필요

- 유럽은 생산능력 한계 및 긴급 조달 수요로 납기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 방산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바이 유로피안 전략²⁸⁾ 추진 중
 - EU는 '27년까지 공동 조달 40%, '30년까지 역내 조달 비중 50%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역내 공급망 및 생산체계 강화
 - '24년 기준 유럽 역내 조달 비중은 20%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 산업기반 복원, 방산 강화정책 등으로 역내 조달 비중 상향 예정

〈표 22〉

EU 방위산업 강화정책

정책명	정책성격	주요내용	예 산	현지 조달 비중
EDF	보조금	EU 방산 연구·개발 지원 연구 100%, 개발 80% 비용지원	79억 유로	사실상 100%
EDIP	보조금	EU 방산 생산·공동조달 지원	15억 유로	역외 부품 비중 35%이내
SAFE	대출	EU 신속한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공동조달 지원 2개국 이상 공동조달	1,500억 유로	역외 부품 비중 35%이내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5년)

- 유럽기업 중심의 역내 공급망 고착화 전 한국 방산기업들의 직접투자, 합작 투자, 현지생산 등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 필요
 - 유럽향 직접수출은 향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지화 전략시 수출 장벽 우회 및 제3국 수출 교두보 역할 가능
 - 이에 따라 K-방산기업들은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현지화 진행 중
- 국내 방산기업들은 인도, 호주에서도 현지투자 및 생산 중이며, 사우디, 미국 등으로도 현지 협력사 발굴 및 현지화 추진 중
 - 인도는 K9, 호주는 K9, K10, 레드백을 현지 생산하는 중이고, 사우디는 천궁-II, 미국은 자주포 현지 생산시설 구축 목표

28) 유럽 내 생산된 무기·부품을 우선 구매하여 외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표 23〉 K-방산의 해외시장 현지화

국 가	업 체	무 기	현지화 전략	생산규모
인도	한화에어로	K9	현지생산 (L&T Hazira)	1차 100대 0.37조원 2차 100대 0.37조원
호주	한화에어로	K9, K10, 레드백	직접투자 (H-ACE)	AS9 30대, AS10 15대 0.9조원 레드백 129대 3.2조원
폴란드	현대로템	K2	현지생산 (PGZ Bumar-Labedy)	2차 180대(9.0조원) 중 61대
폴란드	한화에어로	천무 유도탄	합작투자 (한화 51%, WBE 49%)	규모 비공개, 5.6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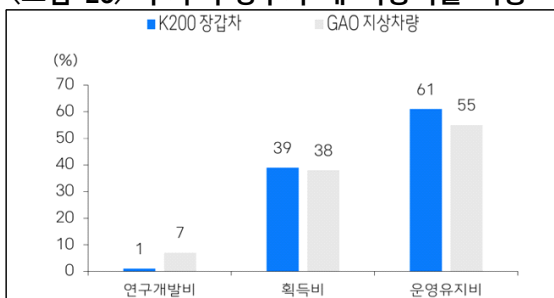
자료 : 다올투자증권(2026년)

- 현지화 전략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중장기 성장이 기대되나, 기술유출 위험 상존
 - 적정수준의 현지화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블랙박스 전략²⁹⁾으로 비핵심 부품 중심의 선별적 기술 이전 전략이 중요

□ 유지·보수·운영(MRO)³⁰⁾ 사업역량 강화로 부가적인 성장동력 확보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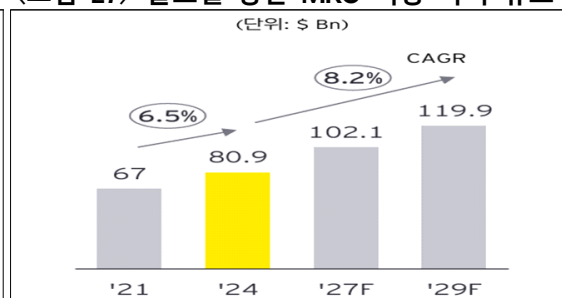
- MRO 사업은 무기 수명주기비용 중 과반의 후속 매출이 기대되는 유망분야로, 시장선점시 오랜 기간 추가매출 창출 가능
 - MRO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인 가운데 독과점이 아니므로 역량 강화 시, 향후 다수의 시장진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지화 전략 추구시 MRO 시설투자를 패키지로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매출 기여 가능

〈그림 26〉 무기 수명주기 내 비용지출 비중



자료 : 삼성증권(2025년)

〈그림 27〉 글로벌 방산 MRO 시장 가치 규모



자료 : EY한영(2025년)

29) 기술의 외형과 운용법은 공유하되,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

30) MRO : Maintenance(유지, 예방정비), Repair(수리, 고장정비), Overhaul(창정비, 재생정비)

3. 드론 강국 도약

□ 고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무인항공기 및 저가형 자폭 드론 등 소형 무인체계 등장

- 보조전력, 정찰용 자산이었던 무인항공기, 저가형 자폭 드론이 극단적인 가성비와 이를 통한 포화 공격으로 전쟁 패러다임 전환
 - 이란전쟁 및 중동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였으며, 단가가 낮은 드론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성능 방공 미사일 고갈 유도
 - 최첨단 전차, 거대 항공모함, 정밀 스텔스 전투기로 대변되던 군사 강국 시대의 근본적인 회의론 직면
 - 비싸고 정밀한 무기가 더 이상 전쟁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저비용 무인체계인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

〈표 24〉 이란산 자폭드론 및 미국/이스라엘 무기 단가 및 특성

무기 체계 명칭	추정 단가	주요 특성
이란산 샤헤드-136(자폭드론)	약 2만 달러	수십~수백 대 동시 방출로 포화 공격
미국산 사드 요격미사일	기당 수십억원	제한된 재고량 및 긴 생산주기
이스라엘 데이비드 슬링 요격탄	기당 수십억원	드론 요격시 비용 비효율성 극대화

자료 : 언론기사(2026년)

□ 드론이 비대칭 전력 자산으로의 가치가 증대되는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해 드론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

- 드론 산업에서의 한국은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 미미
 - 글로벌 시장은 미국 및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드론시장은 중국 기업인 DJI가 글로벌 점유율 약 70% 차지
 - 한국에도 다수의 드론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이 있으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45.3%로 높고 규제에 인한 비행 데이터 축적이 어려워 기술 경쟁력이 낮은 편
 - 다만, 동체(70.8%), 비행제어 컴퓨터(40.2%), 통신 모듈(43.4%) 등 주요 부품에서는 일정 수준 국산화가 진전된 것으로 확인

〈표 25〉

드론 부품별 원산지('24년 기준)

(단위 : %)

구 분	부품 제작국				
	국산	미국	중국	일본	기타
전체	40.5	3.2	45.3	0.7	10.2
모터	30.1	1.4	59.4	-	9.1
프로펠러	33.3	1.4	58.0	-	7.3
동체(바디)	70.8	0.5	19.6	-	9.1
배터리	35.2	1.4	55.3	-	8.2
비행제어 컴퓨터	40.2	8.2	36.1	0.5	15.1
통신 모듈	43.4	4.6	37.4	3.7	11.0
임무장비 카메라/짐벌	30.9	5.0	51.4	0.9	11.8

주 :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산화율 조사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2026년)

- 국가전략으로 핵심부품 내재화, 규제 완화, 군·민간 협력 강화시, 드론강국 도약 가능
 - 국산화율이 낮은 하드웨어 부품(모터, 배터리 등)의 국산화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로드맵 구축, 재정지원으로 기술자립 유도
 - 드론강국 조건은 AI 데이터 경쟁이며, 비행 데이터 축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테스트 환경 조성 지원³¹⁾
 - 해외에서는 드론 활용 증진을 위해 비가시권 비행, 유인 지역 비행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 추진 중
 - 현재 군 조달 체계와 더불어 AI·자율비행 등 민간 혁신 기술을 군이 빠르게 흡수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31) 일정 조건 충족시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BVLOS 기본 허용 구역' 지정, 현장 실증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는 '법령 상시 개정 체계' 마련 등으로 규제 혁신 가능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교보증권(2025), “한화필리조선소 투어 후기: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걷는 한화”
-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6), “2026 美 국방전략(NDS) 분석과 전략적 함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1), “유·무인 복합체계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및 발전방향”
- 남미동아뉴스(2026), “무인체계와 비대칭 전술의 습격... 흔들리는 거대 전력의 신화”
- 다올투자증권(2026), “실전, 현지화, 그래서 K-방산 : 파이프라인 가치 Valuation”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5), “EU 방위산업 주요 정책 및 동향”
- 방위사업청(2025),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 _____ (2026),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표”
- 산업연구원(2024),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_____ (2025),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 _____ (2026), “과급효과로 살펴본 방산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 삼성증권(2025), “방위산업. 한국 방위산업 약진, cycle 순환보다는 구조적 성장”
- 연합뉴스(2026), “방산기업 수리부속 수출·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 중국전문가포럼(2026), “중국, 2026년 국방예산 7% 증액”
- 하나증권(2024), “방위산업. 방위경제학(경쟁력 확보 통한 구조적 성장)”
- 한국무역협회(2025), “주요국 방위산업 정책과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시사점”
- 한국기업데이터(2026), “미국-이란 전쟁 2개월, 주요 산업별 영향 Update”
- 한국산업은행(2026), “국내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시사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5), “K-항공엔진 생태계 : 첨단엔진이 이끄는 산업 대전환”
- 항공안전기술원(2026), “2025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DS투자증권(2026), “K방산 : 지금 놓치면 후회한다”
- EY한영(2025), “방산 골드러시 시대의 K-방위산업, -새로운 금광을 찾아서-”
- iM증권(2025), “러시아의 방산경제 :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SK증권(2026), “방산. 전쟁의 시대 : 해답은 K-방산”

[영문자료]

- SIPRI(2026), “SIPRI Yearbook 2026”